

2013년 5월 12일 (일요일) 날씨 : 맑음

제목 : 할아버지와 목욕탕 간담

오늘 할아버지와 같이 목욕탕을 갔다. 다 일단 안마탕을 들 어가 고 그다음은 냉탕에 들어가 서 수영을 하고 잠수 를 하고 정신 집중하려고 물안에서 앉고 눈을 감고 정신 집중을 하였다. 1분도 되지 않아 실패를 하였었다. 그다음은 이벤트 탕에 들어가서 잠수 를 하였 고 수영도 했다. 또 냉탕에 들어가서 박태환 흉내를 했다. 다이빙 또는 박태환 표 흉내를 했다. 재미있었다.

다음에도 할 아 버 지 네 를 다시 가면 목욕탕을 꼭 갈 것이다. 아! 이걸 까먹었네 할 아 버 지 들 을 밀 었다. 여기서 때가 많이 나왔다.

㉓ ㉔ ㉕